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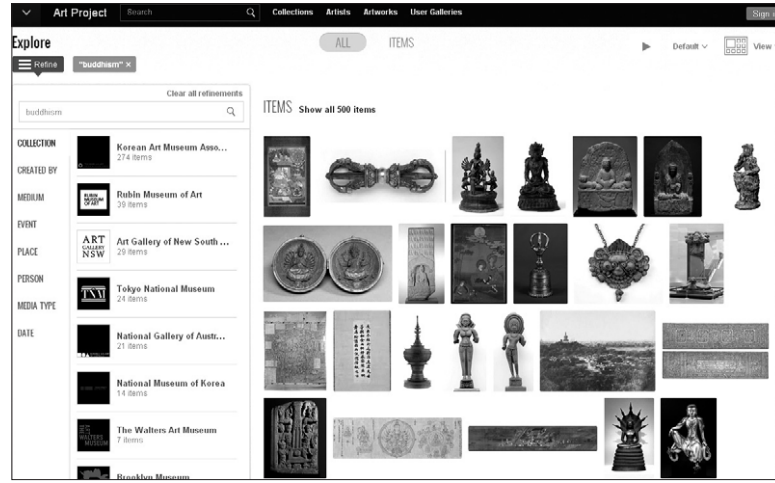
클릭 한 번으로 세계 성보 한눈에 감상

구글 아트프로젝트, 세계 박물관 고대유물·미술품 감상 서비스 실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 그곳에 부처 그림이 있다면? 18세기 상징주의 화가 오딜롱 르동(Odilon Redon)이 그린 '붓다(The Buddha)'라는 작품은 여간해선 인터넷 검색으로 찾기 힘들다. 이처럼 존재유무조차도 몰랐던 불교 관련 문화유산을 집에서,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볼 수 있게 됐다. '구글 아트프로젝트(http://www.googleartproject.com)'를 통해서다. 세계 유명 미술관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과 고대유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초대형 가상 미술관으로 여기면 된다. 반 고흐의 작품은 물론 마네, 렘브란트,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볼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 흩어진 불교 미술품 또한 감상할 수 있다. 게다가 제공되는 이미지는 70억 화소의 고해상도. 확대도 문제없다. 르동의 섬세한 색

상 터치는 물론 부처의 윤곽을 그린 대생 라인에 덧그려진 선을 발견할 수도 있다. 2011년 시작 당시만 해도 서비스 범위가 9개국, 17개 미술관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6개 미술관 3만여 점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도 지난달부터 참여하기 시작했다. 가령 불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 'Buddhism'을 검색하면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부터 아프리카니스탄 지역 불상은 물론 홍콩, 도쿄, 델리의 박물관과 파리, 미국의 미술관 등 41곳에 전시된 500개의 관련 문화재,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작가, 작품유형, 국가, 날짜 별로 선택해 볼 수도 있다.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제공된다. 특히 인기가 많은 서비스는 사용자 갤러리(User galleries).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

면 '내 갤러리'에 추가, 개인별 박물관을 만들 수도 있다. 부처를 주제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박물관을 구경하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이만한데 충분한데 구글은 더 심혈을 기울였다. 마우스를 통해 전시 70억 화소 '기가 픽셀' 이미지 박물관 돌아다니며 가상 투어 불교 시대상 담긴 사진도 검색



구글 아트프로젝트 홈페이지. 'Buddhism(불교)'을 검색했더니 세계 41개 박물관 및 미술관에 전시된 500개의 전시품이 나타났다.

실을 직접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물관을 그대로 컴퓨터로 옮겨놓을 수 있었던 건, 360도 방향에서 찍은 건물 내부 이미지를 통합한 기술 덕분이다. 이 외에도 '역사적 순간(Historic moments)'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역시 'Monk(승려)'나

'Buddha(부처)'를 검색하면 세계 각국의 불교 의례나 행사, 역사적 순간을 담은 사진을 볼 수 있다. 1936년 미국에서 발간된 시사 화보 잡지인 라이프(LIFE)지에 실린 사진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었다. 아직까지는 1964년까지의 자료들만 제공하고 있지만, 불교관련 시대 문화상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다. 불교의 시간을 그러모아 멋지게 갈무리하는 곳.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2000년 불교 역사가 차곡차곡 쌓인 기록관이다. 또한 부처에 감화 받은 이들이 만든 작품 속 순수한 정신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배현진 수습기자



미얀마 라쉬오 시의 사원 스님들이 무슬림 들을 돌보고 있다.

미얀마 사원, 무슬림 보호 나서

"1200여 무슬림, 유혈충돌 피해 불교사원으로"

불교-이슬람 간의 유혈 충돌로 삶의 터전을 잃은 무슬림 1,200여 명이 인근 불교사원들에 머물며 사태 진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AP(The Associated Press)통신이 전했다. 이번 충돌 사태는 지난달 29일 미얀마 북동부 산(Shan) 주 라쉬오(Lashio) 시에서 무슬림 남성이 휘발유 판매상인 불교도 여성(24)과 말다툼 끝에 이 여성에서 석유를 끼얹고 몸에 불을 붙인 것이 발단이었다.

여성은 생명이 지장을 받을 정도로 중상을 입지는 않았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불교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쇠야이프와 각목 등을 휘두르며 이슬람교도들의 사원, 고아원, 가게, 가옥 등에 불을 질렀다. 당시 공포에 질린 1,200여 명의 무슬림들은 스님과 군인의 보호를 받으며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이 전복된 채 나뭇길과, 스키드 마크(skid mark)가 선명한 도로를 지나 인근 불교사원을 찾았고, 사원 측이 이들을 맞은 것이다. "산 주 라쉬오 시의 불교-이슬람 간의 유혈 충돌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한 사원의 스님들은 "종교는 다르지만 무슬림 피난민들 역시 우리의 인연 고리에 얽여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원의 대중 스님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무슬림 피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한편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피난민들의 일상을 돕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라쉬오 거리에서 스님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다"는 킨(Khin, 59) 씨는 "우리 다섯 가족은 애 공격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 채, 허겁지겁 집을 나서야 했다"며 "불교사원에서 이틀째 보내고

네팔 문화 아이콘, 에니 초잉 드롤마

앨범 판매 수익금 ... 비구니복지재단 설립

"제 노래는 부처님 지혜에 대한 신념이자, 저의 정신적 헌신입니다." 네팔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된 비구니 스님이 있다. 바로 티베트계 네팔인 에니 초잉 드롤마(Ani Choying Drolma) 스님이다. 1959년 부모의 손에 이끌려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망명한 에니 초잉 드롤마 스님은 가난한 성장기를 보냈다.



네팔 대중문화 아이콘이 된 에니초잉 드롤마 스님

이후 나기 고포(Nagi Gompa) 사원에서 출가를 준비하는 여정에서, 스님의 재능을 한 눈에 알아본 스티브 티벳츠(Steve Tibbetts·뮤지션·미국) 씨의 도움을 받아 노래를 시작했다.

"제 상업적인 성공은 단지 제 개인이 아닌, 부처님의 정제"라고 말한 에니 초잉 드롤마 스님은 "부처님의 선물인 제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 줄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1998년 공연기획사인 International Music Scene의 요청으로 미주 순회공연을 성황리에 진행하며 미주와 유럽 대륙의 가요계의 주목을 받았다.

에니 초잉 드롤마 스님은 현재 중국 순회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에 입국서류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후 스님의 앨범 <Cho>(1997), <Selwa>(2004), <Dancing Dakini>(2006), <Inner Peace 2>(2011) 등이 크게 성공했고, 그 수익금으로 네팔 비구니 복지재단(Nun's Welfare Foundation of Nepal)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오중욱 편집위원

'명품' 치장·전용 제트기... "스님 맞아?"

호화생활하는 태국 승려 유튜브 공개... '불교 망신'

유튜브에 명품 가방을 든 태국 스님들의 호화로운 모습이 게재돼 세계인들의 반목을 사고 있다.



해외트픽감으로 전락한 동영상 속 태국 스님들. 들고 있는 헤드폰은 40만원 대이고 오른쪽에 있는 가방은 명품브랜드 루이비통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목적으로 프랑스에 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와 관련한 이야기는 추후에 하겠다며 얼버무렸다.

최근 '전용 제트기를 탄 승려들'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약 3분가량의 동영상에는 주황색 승복을 입은 세 명의 태국 스님이 선글라스를 낀 채 아이팟으로 음악을 들으며 비행을 즐기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비행기가 전용 제트기라는 것. 무선 명품 헤드폰과 좌석 한쪽에 놓인 루이비통 가방 역시 네티즌들의 눈썰미를 피해가지 못했다. 힙합 가수 뮤직비디오의 등장인물 같으며 네티즌들이 비아냥대는 이유다. 현재 동영상은 조회수 53만 건을 기록했다.

이들은 태국 북동부에 있는 칸티팜 사원의 승려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타일, 텔레그래프, 가디언, AP통신 등의 세계 매체에 보도되며 '스님 망신'을 톡톡히 시키자, 국립 불교 사무총장 노파라트 벤자 와타나논은 "청빈과 자기수양을 강

조한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문제가 된 스님들은 사치스런 행동에 관한 경고조치를 받았다.

노파라트 씨는 "부처님 생전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이 없어서 규율이 단순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기술 사회니만큼 스님 스스로가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승려의 자율적인 태도를 강조했다. 신도들 또한 스님에게 호화로운 물건을 공양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태국은 국민의 95% 이상이 불교를 믿는 불교국가다. 사찰 수만 2만 7000개고, 스님은 20만 명이 넘는다. 때문에 스님의 격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왕왕 발생한다. 태국은 2012년에도 음주, 성(性) 스캔들 등으로 300명 이상의 승려들이 징계를 받은 등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배현진 수습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짚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뱉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까요?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장은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
-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 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 7 마강용 염주를 통과 시킨 후 줄에 펜던트를 끼워줍니다. 다시 마강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 8 이때 펜던트와 마강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의 마강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더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 12 108염주 완성
심원스님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다함 카페 |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